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

- 탄핵정국의 디시인사이드 토론게시판 사례를 중심으로

송 경 재 (코리아 PDS)

I. 글을 시작하며

1. 문제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이른바 개방적인 네트워크 사회(open network society)로 진화하고 있다. 네트워크(network)는 방송이나 통신장비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인 용어였지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함의(implication)를 포괄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네트워크는 ‘인간, 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 연관된 노드(node)의 집합으로 3개 이상의 요소나 단위들을 연결시킨(connective) 것’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체계적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나 사회차원을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지역과 지구적 네트워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은 네트워크 체계의 대표적인 형태중의 하나이다(카스텔 2004; 민병원 2004).

네트워크는 사회운동에서 인간, 사회현상에 대한 넓은 범위의 확산성과 자유로운 개방성으로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정보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M. Castells 2003)은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현대사회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회로 특징짓고, 정보기술 혁명을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바라바시(Barabási 2002) 역시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화학적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강조했다.

기실 인터넷의 등장은 네트워크 이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폴 바란(Baran 1964)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의 위험을 지적하고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터넷의 등장을 가져와 현대에서 네트워크라 함은 인터넷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진화했다(카스텔 2004, 24-30).¹⁾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의 과학적 성과인 인터넷은 최근 다양한 용도로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 경제·사회적으로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독자적인 문화 트렌드를 만들기까지 한다. 그리고 정치 분야의 적용도 가속화되고 있다. 낮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인 결사체나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함으로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가 하면 사회이슈에 대해 주요한 변수로 자리

1) 인터넷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1969년 9월 미국 고등연구프로젝트국(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ARPA)이 설립한 ARPANET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현재의 상업적인 인터넷으로 발전했다

를 잡은 것이다(정연정 2002, 69-86; 김의영 2004; 조화순, 송경재 2004).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은 ARPANET이 등장한지 3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네트워크 시대로의 진입은 정치적인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네트워크 조직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과 IT 인프라의 확대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2004년 탄핵과 총선 등의 정치적 사건은 인터넷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그 대안으로 부각되는 토론과 시민참여 확대의 공간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참여의 기제(mechanism)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라인골드(H. Rheingold 2003)는 인터넷으로 시민운동 확산과 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이를 네트워크 시대의 참여군중(smart mobs)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의 참여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 매몰됨으로 개인간의 접촉을 방해하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감도 존재한다(윤성이 2001).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와 관련한 논쟁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담론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의 부재로 초기 도입시기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만 머물러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트워크 시대의 총아로서 인터넷이 정치과정 특히 시민의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은 기존의 정치참여와는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연구사례의 선정 및 방법론

본 연구는 2004년 탄핵정국 동안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이하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대상인 디시인사이드는 초기에는 디지털카메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형 사이버 공동체였지만 2002년 이후 독자적인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여 정치적인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비정치적인 사이버 공동체가 어떻게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토마(<http://hantoma.hani.co.kr/Main.asp>)를 비롯한 다른 토론게시판과 달리 디시는 초기에는 비정치적이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즉 처음부터 정치적 지향을 가진 토론 게시판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정치토론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산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둘째, 탄핵정국에서의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이다. 다른 토론사이트가 토론과 논쟁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디시는 탄핵반대라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창조적인 참여방식을 표출했고 네트워크를 타고 사회적인 반향을 만들었다. 셋째 이유는 디시가 회원가입이 없는 공개적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른 토론 사이트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다른 토론게시판의 내용을 주도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례대상으로 선정했다.²⁾

본 논문은 사례 연구(case study)를 위해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이메일

조사, 인터뷰, 게시판 계량적 측정, 문헌연구를 적용했고 인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했다(King, Keohane and Verba 1994). 연구 방법론적으로 사례중심 연구는 소수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일반화를 왜곡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holistic)이고 인과관계가 결합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³⁾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한 변수는 첫째, 디시인사이드 토론게시판 참여자들의 정치참여의 과정, 둘째, 참여의 단계별 확산여부, 셋째, 참여방식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탄핵정국에서 디시인사이드가 가지는 정치참여적인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고, II 장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기존 이론을 검토했다. 이어 III 장은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의 토론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사례연구 결과 확인된 함의에 대한 논의를 서술했고 마지막 V 장에서 결론을 요약했다.

II. 정치참여 이론 검토

참여(participation)라는 단어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야 대중적인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로 한정되었다(C. Pateman 1970).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정치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구성원들의 포괄적인 정치참여가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혹은 어느 정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고 적절한가 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중의 정치참여가 높았지만 파시즘(fascism)으로 치달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Die Republik von Weimar)의 몰락 경험과 다수인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전후 전체주의 때문이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 정치참여의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버바와 나이(Verva & Nie 1972)는 정치참여를 “시민이 정부 인사를 선출하거나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직·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협소하게 정의했다. 반면 밀브레드와 고엘(Milbrath & Goel 1977)은 “정치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정치참여로 보고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도 정치참여의 형태로 보기도 했다.

사실 고전적인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제도적인 선거참여에 제한되어 이해되었다. 슈페터(J. Schumpeter 1943)는 선거제도가 만족스럽게 작용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참여가 어떤 특별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참여의 목적이 정부를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이런 슈페터의 이론은 이후 민주주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쳐 달(R. Dahl 1956)이나 엑스타인(Eckstein 1966) 등은 정치참여를 좁은 의미 - 공정 선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 로 간주하게 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 정치참여는 제한적인 의미규정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근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 근대의 민주주의는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공통의

2) 2004년 10월 25일 현재 탄핵과 관련한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에는 71,742건의 토론물과 수십만 건의 리플(꼬리말)이 올라왔다.
3) 사례연구에 대해서 래긴(Ragin, 1987)과 킹, 코헤인과 버바(King, Keohane and Verba 1994) 등은 소수의 사례를 통해서도 공통된 결과나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 장점을 강조한다.

본질로 한다. 공직자를 선출하여 위임하는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민주주의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소(Rousseau)는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주권이 다른 누구에 의해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거일만 자유로운 영국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루소 2002, 123). 루소는 국가규모가 작고 자작농으로 구성된 사회를 옹호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에 이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논의는 첫째, 참여 자체를 의사결정의 참여와 둘째, 대의정부의 견제, 셋째, 참여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후 루소가 지적한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이 폭넓게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참여의 확대에 대한 관심은 부각되었다. 그 영향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성 내지 대응성의 한계, 그리고 기존의 시민참여 제도들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제도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임혁백 2000; 김의영 1999; 백승현 2000).⁴⁾

페이트먼(C. Pateman), 맥퍼슨(C. Macpherson) 등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하며, 심리적 측면과 민주적 교육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트먼은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참여를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적 사회를 통해 국가정부 밖의 모든 영역을 망라할 만큼 확장됨을 역설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정치조직체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참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참여를 허용하는 조직은 궁극적으로 참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낸다고 강조한다(Pateman 1970, 167-175). 또한 참여 민주주의자인 바버(B. Barber 1984)도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를 주장하며 참여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참여를 강조한다. 참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공선(public good)의 달성과 자아실현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감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노리스(P. Norris 2002)는 정치참여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참여를 전통적 해석으로 정부인사 선임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협소한 개념화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국민국가(nation-state)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참여의 방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을 저항적 행동주의에 따른 참여로 보았다.

이상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주장은 유효성을 가지며 현대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고전적인 정치참여 이론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의 본질에 대해 협소하고 한정된 접근만을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 정치참여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증진에 따라 포괄적으로 강조되면서 논리적으로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고전적인 해석과 달리 새로운 참여의 방식과 변화하는 현실에 따른 유연한 정치참여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며 개념적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리스의 지적대로 세계화·정보화의 네트워크 사회로 확대 적용했을 경우 새로운 참여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4) 특히 백승현은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으나 시민적 참여는 대표자 선출과정이나 시민들의 요구표출 등 제한적인 관여만을 하게 되므로 참여적 형태는 제한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공적 토론, 심의 민주주의 확산,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과 같은 참여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백승현 2000, 7).

Ⅲ. 디시인사이드 사례 연구

1. 디시인사이드 개요

디시인사이드는 1999년 10월에 오픈한 국내 최대 디지털카메라 전문 사이트이다. 초기 디시는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제품정보와 카메라 교육 강좌와 이미지 편집에 대한 그래픽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그러나 디시의 사회적 영향력의 핵심은 이런 정보량이 아니라 ‘페인 또는 행자’와 ‘아햏햏’으로 요약되는 그들만의 문화에 있다.⁵⁾

디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페인 또는 행자라고 칭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실생활에서도 페인은 아니다.⁶⁾ 다만 인터넷 활동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투여하느라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페인’이라 부르고 그 수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라는 것이다. 디시 토론게시판이나 사진게시판 참여자는 대체로 20~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인데,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보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디시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뿐 아니라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그러나 활자문화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이른바 ‘디지털 영상세대’라는 점이다.⁷⁾

이들은 인터넷의 특성과 결부되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장면이나, 친구, 본인 사진, 심지어 애인의 사진을 즉석에서 올려놓고 촌평(리플, 꼬리말)을 주고 받는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일시에 수백 개의 리플이 올라온다. 그 과정에서 ‘아햏햏’이나 하오체, 압박(무언가를 요구할 때), 방법한다(응정한다) 등의 자신들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개설초기에는 다른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공간으로 되었다. 운영자인 김유식도 인정하고 있듯이 “비회원제 사이트고 악성리플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한 사례가 아햏햏인데, 디시 페인들은 아햏햏이란 단어로 모든 것을 표시해 버리면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다. 이는 게시판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토론참여나 응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목살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시는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위문화에 머물러 있어 사회관계를 파편화(fragmentation)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초기 디시 참여자들의 활동은 일견 언어 유희적인 경향을 보이며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B급 문화의 전형을 보여준다(한겨레21 2002년 9월 11일; 송경재 2004).

그러나 디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 시대적 사건 때문이었다. 특히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와 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살해

5) 디시 페인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침야활(晝寢夜活), 그리고 면식’이다. 주침야활은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것이고 면식은 라면을 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햏햏의 시초에 대해선 여러 설들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오타설이다. 두번째는 2002년 2월 엽기갤러리에 한 여자 조각상을 꺼안고 기괴한 웃음을 짓는 남자사진이 올랐다. 사진 속 남자 옆엔 아햏햏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세번째는 코스프레 사진에 대한 꼬리말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어떤 설이건 아햏햏이 코믹하면서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제기됐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한겨레21, 2002년 9월 11일).

6) 본 논문에서는 디시에서 활동하는 페인 또는 행자를 대중적 용어로 참여자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7) 디시에서 패러디와 동영상, 음악, 회화화 등이 활발히 제작되는 데에는 이런 영상세대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사건은 파편화되어 있던 페인들을 정치적으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만의 페인 또는 행사 문화에 젖어 사회·정치적인 사안은 무시했던 페인들은 게시판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표 1 > 디시인사이드 토론게시판 요약

번호	토론 주제	게시일	토론건수	비고
1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	02/11/29	3,321	
2	흑한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	03/01/13	109	기계사용
3	사라진 음가의 재사용	03/02/11	505	한글사용
4	이라크전에 대하여	03/03/19	650	
5	유승준 입국 찬반 논쟁	03/05/30	2,416	
6	핵폐기장 건설문제	03/07/30	45	리플달기 시작
7	문희준, 네티즌 고소	03/08/08	115	
8	소리바다, 빅스뮤직 등 디지털 저작권 논란	03/09/05	112	
9	호주제 폐지문제	03/09/05	440	
10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하여	03/09/17	264	
11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03/10/13	256	
12	김병현, 기자폭행 사건	03/11/14	124	
13	대통령 특검 거부권 논란	03/12/02	37	
14	이승연 종군 위안부 누드 논쟁	04/02/13	472	
15	대통령 탄핵안 가결	04/03/12	71,745	
16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04/05/25	379	
17	행정수도 이전 논란	04/06/16	433	
18	한국인 인질피살과 이라크 파병	04/06/23	869	
19	중국의 역사왜곡	04/08/09	79	
20	성매매 특별법 시행	04/09/24	152	
21	고교등급제 시행 논란	04/10/14	23	
22	수도이전 법률 위헌 결정	04/10/21	433	

* 자료 : 디시인사이드 토론게시판 참조(2004년 10월 25일 현재 기준).

이는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분화과정에도 잘 나타난다. 2002년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운영자는 디지털카메라 정보와 구분하여 자유게시판을 분화, 정치토론 게시판을 새로 개설했다. 게시판을 분리 운영하면서 디시 참여자들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확산된다(김유식 2004).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주제별 토론문 역시 정치적인 토론의 경우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된 점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참고로 토론건수에는 이른바 리플(꼬리말)이라고 하는 10줄 내외의 문장 달기는 포함되지 않아, 서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토론은 집계된 것보다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다.⁸⁾

8) 토론주제 선정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제선정 게시판에 올리면 이에 대한 반응도와 운영자가 시기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제로 선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22개의 주제 중 2번 흑한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과 3번 사라진 음가의 재사용을 제외하면 20개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민감한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2. 탄핵정국과 디시인사이드

탄핵정국 기간동안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의 글 건수는 71,745건이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서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글이 48,987건이고 나머지는 이후 10월 25일까지 올라온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정치토론 게시판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탄핵정국을 탄핵발의 이후 과정을 세부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1) 공론 형성기 (3월 12일 ~ 14일)

공론형성기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3월 12일 이후 14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은 탄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공개형 게시판인 탓에 참가자들은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탄핵반대 공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집되었는데 당시의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판 분석을 해보면, 3월 12일에는 571건의 글이 게시되었다. 주요 게시내용은 탄핵통과 소식과 향후의 정치일정, 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다. 그러나 13일부터는 본격적인 탄핵반대가 부각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당시 진행되었던 TV토론회에서의 야당의 토론내용이었다. TV토론회에서 빈약한 야당의 탄핵논리에 대해 디시 게시판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일부에서는 해당의원들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고 ‘어록시리즈’도 만들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중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어 <탄핵반대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광화문 촛불집회를 조직하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온라인상의 토론은 집회참여로 결집되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탄핵주역과 TV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패러디(parody)⁹⁾가 확산되었다. 탄핵반대 패러디물이 사이트에 대량으로 나타났고 어록시리즈가 발전하면서 토론문이 하루 1,464건으로 늘어났고 조회수도 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이 시기부터 디시는 콘텐츠의 기발함으로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진 및 동영상, 만화 패러디와 정치유머를 보기위한 방문자들이 급증했다.

< 표 2 > 공론형성기의 정치토론 게시판 개요

	3월 12일	13일	14일	소계	평균
토론문 수	571	844	1,464	2,879	959.66

* 토론문 아래에 달려있는 10줄 내외의 리플(꼬리말)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 기간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은 전형적인 공론형성의 장으로서 기능했다. 당시의 게시판 제목을 리뷰하기 위해 14일 게시된 100건의 토론문을 무작위 순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87건의 게시물이 탄핵반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10건이 양비론과 디시 참여자(행자)들에 대한 비판글이었다. 이는 당시 디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탄핵반대에 대한 의견이

9) 저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 또는 조롱삼아 꾸민 익살스런 문학작품의 형식이다. 대표적으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도 전설의 패러디이다. 국내의 정치 패러디는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다.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특징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노골화되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독자적으로 보도와 방송을 편집, 게시판에 올려 의견을 교환하며 의제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위한 방법이 고안되었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방법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2) 탄핵반대 운동기 (3월 15일 ~ 27일)

탄핵반대 운동기는 공론 형성기를 거치며 축적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욕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반대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선다. 이 기간동안 디시 토론 참여자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동영상·패러디·음악을 전파하면서 탄핵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출했다.

< 표 3 > 탄핵반대 운동기의 정치토론 게시판 개요

	3월 15일 ~ 27일	1일 평균	비고
토론문 수	11,768	905.23건	

탄핵반대 운동기의 정치토론 게시판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관련된 토론이다. 그리고 탄핵세력에 대한 선거심판론이 등장했다. 토론자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각자의 지역구에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특징에서 나타나는데, 네트워크에서 정치 패러디를 확산했다는 점이다. 디시 참여자(행자)들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패러디를 제작 발표했고, 다양한 어록시리즈, 유머를 만들었다. 닉네임 ‘하얀 쪽배’로 유명한 정치 패러디 작가 신상민이 디시 토론 게시판에 패러디 작품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지만 디시 참여자(행자)들의 패러디와 유머는 더욱 늘어갔다.¹⁰⁾ 이 영향으로 범국민행동은 3월 20일 100만인 대회와 27일 촛불문화제에서 오프라인 집회뿐 아니라 사이버 시위를 조직했고 그 결과 사이버 촛불 릴레이시위와 평화적인 행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찰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또 동영상과 서명운동, 게시판 참여 등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로만 45만명이 사이버시위에 동참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04년 3월 20일-27일; 연합뉴스 2004년 3월 27일).

그리고 이 시기 또 다른 변화는 디시 참여자들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집회에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디시 폐인들은 네트워크 외에서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간의 불문율을 깨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상징인 ‘개죽이’ 깃발과 각종 변장소품을 들고 집회에 참가해 유희적 시위문화를 만들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4년 3월 24일).¹¹⁾ 디시의 직접적인 시위참여는 과거의 디시 문화를 고찰한다면 가히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0) 하얀쪽배는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상에서 정치 패러디 작가가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한국일보 2004년 7월 26일).

11) 개죽이는 개가 대나무(竹)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생긴 신조어로 디시인사이드의 동물캐릭터이자 디시행자들의 트레이드마크이다.

다시 참여자(행자)들은 자신들만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판받았지만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된 것이다.

3) 선거운동 기간 (3월 28일 ~ 4월 15일)

3월 27일 집회를 끝으로 범국민행동은 선거법상의 문제로 집회를 중지한다. 이에 다시 참여자(행자)들과 게시판 참가자들도 장기간에 걸친 오프라인 집회를 그치고 선거참여 방법에 대한 토론에 집중했다. 집회참석으로 인해 소홀했던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면서 1일 평균 게시물 수는 늘어났고 선거법상의 틈새를 활용한 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해 선거참여나 일부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온라인에서 다시 참여자(행자)들의 활동이 선거참여에 집중된다. “우리는 무적의 투표부대” 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탄핵반대에 대한 꾸준한 의견이 게시되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정치토론 게시판은 정당별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 대한 비판중심에서 투표행위에 접하게 되면서 성향에 따라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탄핵반대와 선거참여라는 두 흐름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었다.

< 표 4 > 법적 선거운동기간의 정치토론 게시판 개요

	3월 28일 ~ 4월 15일	1일 평균	비고
토론문 수	19,545	1,028.68건	

둘째, 선거운동 기간 정치토론 게시판의 토론문은 탄핵반대 운동기보다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기간에는 게시판의 하루 평균 토론문 수가 905.23건이었지만 선거운동국면에는 1,028.68건까지 증가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한나라당 대표 선출,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삼보일배, 보수언론 반대 등은 시기마다 패러디의 주제가 되어 많은 콘텐츠가 생산, 네트워크를 타고 외부로 확대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시 참여자(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면서 독자적인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중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 토론 참가자들은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선거참여와 관련된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performance)를 독자적으로 실시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온라인 개죽이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 얼짱 베스트 5, 인터넷 실명제와 종량제 토론, 지역주의, 각당의 공약평가 등의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조직하기도 했다.¹²⁾

이런 변화로 인해 과거 개인화된 공간에서 정치투쟁의 일변지, 패러디의 집성지로서 다시 정치토론 게시판은 부각되었다. 당시 많은 관련 게시판과 패러디 사이트보다 디시의 활동이 뛰어났었던 점은 게시판 조회수에서 확인된다. 선거운동기간 아무리 사소한 글이라도 수십 개의 리플이 달리고 최소 15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 만큼 디시의 정치참여적인 활동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다. 그런 성과물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확산되었고 기존의 여론형성자들과 달리 사이버 상의 강력한 의제설

1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정치에도 재미를 추구한다 - 온라인 개죽이 토론회.” 제언서 참조. <http://edu.woosuk.ac.kr/%7Eews012008/dc.hwp> (검색일: 2004년 10월 25일)

정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은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정책적 발의의 주체로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려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4) 관망기 (4월 16일 ~ 5월 14일)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후 4월 16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관망기였다.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획득으로 끝나면서 재개된 탄핵반대투쟁은 선거법을 피해 4월 15일 오후 6시 10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디시 참여자(행자)들은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광화문집회와 퍼포먼스를 병행하여 계속했다.

텔레이 1인 시위는 탄핵정국에서 부각된 새로운 현상중의 하나였다. 집시법과 선거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주로 이용되었지만 선거기간 디시인사이드의 개죽이 깃발과 함께 선거참여 퍼포먼스와 텔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또 디시 참여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시위도 적극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집회가 아닌 소규모 항의형태의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이런 준비와 결과보고 동영상, 사진은 게시판에 올랐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많은 네티즌들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면, 내부 온라인토론은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참여인원도 감소되었다. 적극적인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가 구분이 되고 상시적으로 글을 올리는 참여자 아이디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토론문의 양적인 하락에서도 발견되는데 선거운동기간 하루 평균 1,000건을 넘었던 것이 이 시기에는 평균 510.1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표 5 > 관망기의 정치토론 게시판 개요

	4월 16일 ~ 5월 14일	1일 평균	비고
토론문 수	14,795	510.17건	5월 14일 : 653

5) 계승기 (5월 15일 이후)

탄핵심판 이후 디시 참여자(행자)들의 활동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 흐름은 예전과 같은 전형적인 폐인의 공간, 일상으로 돌아간 경우이고, 두 번째 흐름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관심을 상시적으로 표출할 공간을 새롭게 확보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흐름으로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네티즌은 새로운 활동영역을 창출했다. 그리고 역시 그 방식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데 이미 3월 30일 디시 토론게시판의 열기를 모아 다음넷(<http://www.daum.net>)에 DC 토론게시판의 온라인 개죽당! 카페(cafe.daum.net/dctoge, 이하 온라인 개죽당)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관심을 표출할 사이버 패러디 정당을 개설했다.

온라인 개죽당은 결성문에서 2004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정에서 분출된 디시 참여자(행자)들의 정치참여 열기와 지역분열 및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생활정치 구현과 한국정치의 근본적 정치개혁 및 행자들의 정치참여 고취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즐거운 패러디 정당으로서 사이버 상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체 참여 회원수도 10월말 현재 1,500여 명이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패러디 정당답게 중앙위, 대변인, 성명서 등 정당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내부 구성을 보면 디시 정치토론 게시판보다는 적극적인 정치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공부방과 당원활동, 미디어란을 만들어 다양한 관심사를 유지하고 인터넷에서만 가능한 패러디, 동영상, 음악듣기, 좋은 글 퍼 나르기, 선거법 토론, 네티즌과 선거법 등의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보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주적인 운영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온라인 개죽당은 매주 수요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며 성명과 논평을 발표한다.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 중앙위원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 디시내의 정치 토론게시판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네티즌들의 진보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사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패러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이들의 조직적 대응은 진정서, 탄원서 서명 등의 작성과 게시판 지지글 확산, 그리고 별도의 전시회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온라인 개죽당이란 사이버 공동체 공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들에 대한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시의 정치 토론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이벤트로 국회의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¹³⁾

IV. 네트워크형 정치참여

이상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디시 참여자(행자)들의 시기적 구분을 요약하면 각 시기별로 공통성도 있지만 활동양상이 변화하며 참여자들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디시인사이드의 정치 토론게시판은 2004년 탄핵정국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왔다. 그 결과 정치과정에 선거나 항의 행위로만 해석되던 고전적인 참여방식과는 달리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을 선보이며 정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길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투표하는 방식의 정치참여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인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고 보편화된 다양한 정치참여의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상의 특징을 가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네트워크형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by network)’ 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패러디 제작, 디지털카메라 고발, 리플 달기, 항의리본 달기, 글 나르기(펌질), 사이버 촛불시위, 동영상, 사이버 음악 등이 대표적이다.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는 이전의 참여방식과는 다른 성격과 형태를 보이며 네트워크 시대에 발생한 자발적인 참여의 활성화·보편화·다양화가 가능하며 확산성으로 파급효과는 배가된다. 이처럼 네트워크 시대는 기존의 정치참여적인 특성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참여방식과 현실에 따른 유연한 적용으로 개념과 방식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13) 10월말 현재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임종석 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11월에는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 표 6 >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의 시기별 특징

구분	기간	게시물 건수	특징
공론 형성기	3/12~3/14	2,87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과 정보공유 (agenda setting) · 탄핵과정 및 TV 토론회 참석자 비판 · 개별적 집회참여 전달
탄핵반대 운동기	3/15~3/27	11,76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촛불집회 참여 및 탄핵반대 적극화 · 기성언론과 대결 (토론회비판 및 패러디 제작) · 선거참여 촉구와 야당 비판 · 집단적으로 시위에 참여
선거운동기	3/28~4/15	19,54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적의 투표부대 확산 · 선거참여 독려 및 탄핵 심판론 · 자체 탄핵반대 1인 릴레이 시위 조직 · 각 이슈별 토론 및 평가
관망기	4/15~5/14	14,79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결과 토론 · 탄핵반대 집회 재개, 온라인 토론
계승기	5/15 이후	22,75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치적 공간으로 발전 (온라인 개죽당 창당) · 정치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각종 정치사안에 대한 토론

1. 네트워크형 정치참여의 특징

네트워크 정치참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정치참여의 활성화 측면으로 전통적 방식의 정치참여가 오프라인 상에서 정치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제한적 방식이었다면 네트워크 시대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싼 거래비용으로 결사가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는 낮은 거래비용으로 보다 많은 집단행동이 가능하게 되고 단기간에 그것을 확산하여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의 정치참여는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제한적으로 집중되었지만 네트워크의 확산은 좁은 범위의 참여를 보다 폭 넓게 활성화시켜 준다. 마치 네트워크의 가치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제공으로 늘어난다는 매트칼프(Metcalf)의 법칙이 사회현상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사회에서 일반시민은 경제활동에 묶여 정치참여는 제한적인 시위나 항의, 투표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시대로의 진입은 이 같은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고 있다.

연구한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의 토론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한 경우이다. 디시인사이드의 초기 행태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이버문화 공간에 불과했지만 이에 대한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년간의 축적된 역량이 2004년 탄핵정국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의제설정과

집단행동, 그리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결속력이 강한 사이버 토론장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참여 민주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 참여적 교육이 다시 정치토론 게시판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활정치, 정치개혁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데 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네트워크형 정치참여의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해서 정치참여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기존에는 언론, 정치인,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에 한정되었다면 네트워크 시대에는 수동적이던 시민이 적극적인 제안자로 대두하고 있다. 즉 사회적 의제설정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언제, 어디서, 누구나 형성이 가능한 정치참여의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조화순, 송경재 2004).

탄핵정국 동안 다시 참여자(행자)들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풍자했으며 나아가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확산했다. 그리고 게시판을 방문하는 네티즌들은 그것을 퍼다 나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유기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 한 다시 토론참가자에 따르면, 다시 정치토론 게시판의 장점은 각종 정치적인 토론문을 올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있다고 했다(인터뷰 2004년 10월 31일). 즉 다시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가 가능했고 장기간 형성된 내부 규범으로 참여자들은 누구라도 쉽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집단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송경재 2004). 요컨대,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의 보편화는 사회·정치적 의제설정이거나 의사결정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일부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국가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 번째 특징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정치참여 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치참여가 직접적인 현실참여나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했다면, 네트워크 상에서 확산되는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는 새로운 체계와 법칙을 가지는 참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표출된다.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의 다양화는 단순히 온라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위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¹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된 것을 비롯해 사이버 촛불시위, 패러디의 확산, 릴레이 상장(喪章)달기나 리플, 펌질 등은 역시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새로운 참여토론과 시민운동의 전형을 보여준다.

2002년 여중생 추모 근조달기의 변천과정은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방식과 확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근조달기를 제안한지 불과 10여일 사이에 글이나 메신저 아이디에 붙였고, 초기에는 리본모양의 ▶◀에서 삼베모양의 ☒와 罽로 변화시켰다. 이런 현상은 탄핵과정에도 잘 나타난다. 다시 정치토론 게시판의 공론형성기의 주요한 토론은 소식전달과 정보공유였다.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소식을 부지런히 다른 사이트로 실어 날랐고,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등 첨단장비로 동영상 제작한다거나 패러디, 정치인 어록시리즈를 생산, 유포해 다른 사이트에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확산성은 적극적인 참여자와 함께 네트워크 시대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이 개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14) 당시 인터넷 상에서 항의운동을 주도하던 ‘사이버 범대위’ 게시판에서 ‘앙마’라는 네티즌이 “광화문에서 반딧불이가 됩시다”라는 글을 올린 지 보름 만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10만 여명이 나와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30일과 27일의 탄핵반대 전국 집회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범국민 행동이 오프라인에서의 시위와 온라인에서의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 표 7 > 네트워크 정치참여의 특징

구 분	이 전	네트워크형 정치참여	비고
시대 배경	· 산업화 시대	·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	
참여 공간	· 현실 오프라인활동 중심	· 오프라인 + 온라인	
참여방법	· 고전적 : 선거, 항의 · 이후 포괄적 정의로 확대	· 포괄적인 정의 적용 · 네트워크적 참여방법 등장	· 페러디/동영상/편집 /온라인토론/리본 등
참여주체	· 시민	· 시민(네티즌 개념 확대)	
의제설정의 주체	· 일부에 집중	· 확산, 보편화	
확산방식	· 산술적 확산	· 기하급수적 확산 · 메트칼프 법칙 = N^2	· 리드의 법칙 = N^n 으로 발전

요약하면, 이처럼 인터넷 네트워크의 도입은 참여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 그리고 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와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로 발전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형 정치참여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인 정치참여의 방식과 함께 새로운 참여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해결할 과제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은 남는다. 첫째,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 사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정치참여는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감 없는 정치참여의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디시 게시판은 구성원들 간의 세대적·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탄핵반대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참여자들이 나섰다. 그 영향으로 비교적 일관된 방향으로 토론이 유도되면서 새로운 참여방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하기는 아직 실증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오히려 다른 토론, 논객사이트의 경우 정치적인 관점 또는 입장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장우영 2004). 헌팅턴(Huntington)과 토크빌(Tocqueville)이 지적한대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무분별한 참여의 확대가 정치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참여의 과다’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Pharr and Putnam 2000).¹⁵⁾

둘째,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의 일상화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있다. 페이트먼(Pateman)이 주장했듯이, 민주주의는 참여가 중요하고 참여에서 중요한 기능은 심리적 측면과 민주적 기술 및 절차실행을 획득하는 교육기능이라 할 때 정치적 관심과 참

15)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사회적 정체성의 노출과 중재자의 개입이 보다 책임감 있는 토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준용외 2004).

여를 위한 일상적인 관심과 단련은 필수적이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의 경우 2002년부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여, 내부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된 경험은 2004년의 탄핵정국 토론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토론 게시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경험이 미진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심의가 없고 욕설과 비아냥, 비난이 난무하는 공간도 많다(윤성이 2001). 따라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토론 게시판의 경우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범이 형성되어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가 일상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자율적인 규범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혹은 세대격차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젊은 세대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참여 방식에,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정치참여로 양극화될 소지가 있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2004년 탄핵정국 동안 대표적으로 토론이 활성화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디시인사이드의 정치토론 게시판을 사례 연구하여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탄핵정국 기간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은 당시 어떤 토론장보다 활성화되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곳이다. 토론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다른 게시판보다 참여적 이었고 탄핵반대를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은 네트워크적인 특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정치참여의 법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일상화하기 위한 모색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핵정국을 다섯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별 특징과 토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탄핵정국 동안 디시의 정치토론 게시판은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라 불릴만한 정치참여 방식을 형성했다. 그로인해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내용은 풍부화 되고 그 유용성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는 정치참여의 활성화-주체의 보편화-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제한적인 방식의 정치참여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셋째, 인터넷 네트워크의 도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완적 기제로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현실에 따른 유연한 개념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는 아직 해결할 과제도 있다. 네트워크로 인한 정치참여의 용이함은 반대로 책임 없는 참여로 나갈 수 있다는 점과 일상에서의 참여의 강화 문제, 그리고 정보격차의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는 기술 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디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네트워크형 정치참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리라고 선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성공사례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앞으로 네트워크형 정치참여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여지가 더 많다 하겠다. 디시인사이드는 페인·행자문화로 개인화되고 과편화된 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었지만 점차 자각을 통해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공간으로 나왔고 그것을 생활정치의 개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20~30대의 세대 동질성을 확보, 그리고 중재자의 존재와 장기간의 토론 경험이 뿌리가 되었다. 이는 최근 토론 사이트에서 나타난 심의와 토론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성을 가질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유식. 2004. 『인터넷 스타 개죽아, 대한민국을 지켜라!』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김의영. 1999. “한국 이익집단 정치의 개혁방안.” 사회과학원 편, 『계간 사상』 1999. 여름호.
- _____. 2004. “정보화시대의 정치참여와 정치발전: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4 하계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루소 저·이태일 옮김. 2002. 『사회계약론』 서울: 범우사.
- 마뉴엘 카스텔 지음.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옮김.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 _____. 박행웅 옮김. 2004. 『인터넷 갤러리』 파주: 한울아카데미.
- 민병원. 2004. “세계화와 지식네트워크.” 한국정치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백승현. 2000. “참여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 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9호. 서울: 한국 의회발전연구회.
- 송경재. 2004.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성이. 2001.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이상과 현실”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서울: 한국사회이론학회.
- 이준웅, 김은미 외. 2004.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조건에 따른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17대 총선정국 인터넷토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1차 심포지움 자료집.
- 임혁백. 2000.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6권 2호. 서울: 한국 의회발전연구회.
- 장우영. 2004. “온라인 저널리즘의 정치적 동학.” 한국정치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정연정. 2002. “인터넷과 집단행동의 논리: 올슨(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봄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 조화순, 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워크의 정책결정과정” 미발표 논문.

오마이뉴스 2004년 3월 20일 ~ 27일
 연합뉴스 2004년 3월 27일

